

제429회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임시회의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0월13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추가)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1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나경원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5
2.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5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

(14시37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경원 위원 토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고 일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후 국정감사를 재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토론시간을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오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을 보면서, 사실 갑자기 저희 방을 통해서 국민의힘 증인 출석 요구를 더 할 것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2명을 제외시켰습니다.

사실 증인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원래 여야 간사 간에 합의와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이 말도 안 되는 간사 없는 국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사 선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와 협의의 절차는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18명 중에서 12명은 제외하고 6명만 받으셨는지, 도대체 이러한 국회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12명을 보니까, 얼마 전에 정말 비극적인 양평군의 우리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민중기 특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관련된 증인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그 밖에 또 이진숙 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대답을 정말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고 철회하고 추가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합의에 의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지금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살인사건에 관해서 저희가 검증 동의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건도 반드시 오늘 의안에 상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도 민중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검증합시다. 우리 대법원 가서 검증하듯이 억울한 공무원의 죽음.....

여러분들, 보십시오. 서면동의 없이는 심야 조사할 수 없습니다. 서면동의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술과 증거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강압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15시간이나 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압수사의 방증입니다. 게다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다, 이것은 고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또 유족이 분명히 자살임이 명백한 사건이라서 부검을 반대하고 있는데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기 특검에 가서 CCTV, 유서를 볼 수 있는 검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장검증 이 안, 반드시 표결해 주시고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박준태 위원 입장을 들어야 토론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이성윤 위원 존경하는 나 5선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때마다 나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짜증 나게 하고 있습니다.어서 법사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사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위원장이 진행을 잘하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은 진행을 잘하고 계십니다.

○조배숙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성윤 위원 민중기 특검을 과거의 자신들의 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정치검찰이 억지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하던 것을 보고 민중기 특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은 참 안타깝고 유족들에게도 우리가 유감의, 위로의 뜻을 표하지만 그러나 이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명령에 의해서 특검법이 통과됐고 그 특검이 시한을 정해서, 윤석열 정권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켜켜이 쌓인 김건희 비위 열여섯 가지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성원을 보면 특검은 법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특검보들은 민간인 변호사들이 왔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경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한다고 했었어요. 특검, 우리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조금도 간섭하지 못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과거에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들이 해 댄 것처럼 정말 집요하게 회유·협박,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내고 또 연어 파티로, 술 파티로 회유했던 것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특검이 밝혔지만 저는 특검이 우리 국민들의 명에 따라서 진상만 규명하면 되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혼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국힘 의원들의 상당 부분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언젠가는 곧 불려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특검에서 자신들의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렇게 강압수사, 서면동의, 현장검증이니 CCTV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부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특검이 정말 역사적인 내란,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제발 한 공무원의 죽음을 정치적 소재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박준태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여기 박준태 위원님 토론하신대요.

○박균택 위원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해 주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준태 위원 무슨 간사가 토론 종결을 요청……

○나경원 위원 토론 종결, 늘 토론 종결이야.

○박준태 위원 아니, 그리고 위원장께서 입장을 밝히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

을 말씀하세요.

○나경원 위원 입장을 말씀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누구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을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김용민 위원 그건 그다음에 있잖아요.

○박준태 위원 뭐가 있어요? 이것 서류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님.

○김용민 위원 1항부터 하고 그다음이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준태 위원 입장을 얘기해야지요, 어떻게 할지 알려 주지도 않고.

○위원장 추미애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준태 위원 이의가 매우 많아요.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이렇게 여야가 의견이 갈리는데 위원장님까지 꼭 그렇게 손을 드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좀 빠지시지요, 표결에. 모양새 흉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나경원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14시48분)

○위원장 추미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에 놓인 서면동의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서면동의서에 나경원 위원님 외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검증 실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4시49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2항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검팀 조사실을 방문해 사망자에 대한 조사 과정, 기록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증 일시는 10월 22일 오전 10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전체회의 후에는 국감을 재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강압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의 수사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점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잘못이 없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통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수사절차 위법

부분은 우리가 검증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자료제출 요구도 같이 했습니다. CCTV 그리고 유서, 지금 유서를 아직도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유서의 자료제출 요구들을 함과 동시에 현장검증을 가서 CCTV를 보고 과연 그동안 어떤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서면동의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이 저희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들여다보시지 말고 정말 한 공무원이 강압수사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늘 검찰의 강압수사, 별건수사 등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강압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보여 오셨는데 이번에는 민중기 특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시간 그리고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면동의가 있었다면 서면동의서가 있을 텐데 아직 특검팀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가서 당연히 이것을 검증,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위원들께서 이 특검이 정말 정정당당하다면 민주당 위원들도 이것을 국민들께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불법이 있다면, 민주당 위원들께서 더 센 특검을 발의해서 약 300명 규모로 특검을 확장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특검의 기간이라든지 특검 수사팀의 확대는 저희가 용인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균택 위원** 토론 신청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박균택 위원**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 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권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인권론자들이 되셨습니까? 또 윤석열 정권 당시에 야당을 대상으로 4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반복을 하고 진술세미나, 연어 파티, 술 파티를 벌일 때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인권 타령을 하시는 겁니까?

○**신동욱 위원** 돌아가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 아니에요?

○**박균택 위원** 자살 사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복을 빌어야 할 일이지 이렇게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조배숙 위원** 정쟁이 아니에요.

○**박지원 위원** 발언 좀 들어 봐요! 우리가 나경원 위원 발언할 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박균택 위원** 여기 ‘살인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살인사건’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면 살인사건이라고 한다면 부검을 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부검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두고 ‘살인사건’이라고 표현하고 ‘강제 부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경원 위원 박균택 위원님, 이거 앞뒤로 읽어 보세요. 살인사건이 무슨 살인사건이에요? 이걸 알아들여 주세요.

○송석준 위원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검증해 보자고요. 읽어 보세요.

○김용민 위원 ‘살인사건’ 써 놨네.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게 자살에 의한 살인사건……

○박준태 위원 안 읽어 보셨지요, 내용?

○전현희 위원 조용히 하세요.

○박균택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국정감사, 우리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많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따져 보십시오. 개인적 차원에서 활동을 하세요.

(장내 소란)

○박준태 위원 내용 안 읽어 보셨지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죽었다고요!

○김용민 위원 이태원 때 그랬어야지, 이태원 때! 이태원 때 그 무시를 해 놓고 어디서.

○나경원 위원 얼마나 강압수사를 했으면……

○박균택 위원 그러면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 갈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박준태 위원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나경원 위원 진술서 읽어 봤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박균택 위원 국힘! 국힘 의원들은 아무 말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김용민 위원 오송 참사 때는 뭐 했고! 도대체 말이에요.

○송석준 위원 죽은 사람 뉴스 대 보세요.

○나경원 위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박균택 위원 피해자가 자결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명복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기다 대고 살인사건이라니요. 양심이 있는 분들입니까?

○박준태 위원 이재명 대통령 측근 중에 죽은 사람 몇 명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 죽은 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나경원 위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대장동·백현동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박균택 위원 일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고인이 있는데 춤추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어?

○전현희 위원 그때 검찰에게 책임을 물어야지요! 지금 특검처럼 검찰에게 책임을 물었어야지요!

○박준태 위원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나경원 위원 사람이 죽었을 때……

○박균택 위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가지세요, 양심을.

○나경원 위원 양심이 있어요!

○박균택 위원 5선 의원님, 양심을 가지세요. 부끄러움을 아세요.

○**나경원 위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대장동·백현동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전현희 위원** 왜 이재명을 탓합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김건희 탓을 해야지요.

○**박준태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규택 위원** 개인적으로 반문하세요.

○**곽규택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박준태 위원** 토론이든 의사진행발언이든 주세요, 좀!

○**김용민 위원** 의결해 주세요.

○**박규택 위원** 양심이 있어야지.

○**박준태 위원** 그러면 얘기 들어 보세요!

○**나경원 위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전현희 위원** 그러면 윤석열·김건희 탓을 해야지요. 윤석열·김건희 탓 아닙니까, 그러면.

○**박규택 위원** 윤석열 검찰 때 일이란 말입니다.

○**나경원 위원** 고 김문기 씨 죽었을 때 춤추고 논, 춤춘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내란을 저지른 사람들이, 내란 옹호하는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 내란 저질러서!

○**박준태 위원** 저기 앞에 조문이라도 갔다 오세요.

○**곽규택 위원** 이재명 사건 몇 명 죽었어요? 한두 명 죽었어요?

○**김용민 위원** 내란 저질러서 사람 얼마나 죽이려고 했냐고요, 지금 그쪽이!

○**박준태 위원** 그리고 책임을 좀 느끼세요. 민주당이 만든 특검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지금!

○**나경원 위원** 뻔뻔하다고.

○**박규택 위원** 윤석열 검찰 그때 나서지 그랬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좀 합시다, 토론 좀 해.

○**위원장 추미애**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토론의 기회를 주십시오. 의결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추미애** 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위원** 종결하면 안 됩니다.

○**장경태 위원** 김건희 특검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송석준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탄생해서는 안 될 특검에 의해서 벌어진 잔혹한 사망사건입니다.

○**박규택 위원** 윤석열 정권에서는 밥 먹듯이 일어나던 일들입니다.

○**박준태 위원** 하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무슨 죽은 사람까지 모욕하는 얘기를 해요?

○**곽규택 위원** 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조배숙 위원** 누가 죽었어요, 누가?

○**나경원 위원**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백현동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때 춤춘 사람이 누구야? 어디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본인 자술서가 있어요, 본인의.

○**위원장 추미애**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말을 잘 안 들으시고 놓치시면 반대로 하게 됩니다.

○**박준태 위원** 그리고 두려울 게 없으면 발언이라도 하게 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토론을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님.

○**장경태 위원** 국정감사 좀 합시다.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 박준태 위원** 사람 죽은 거 가지고……
- 박균택 위원**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을 신청했잖아요.
- 박준태 위원** 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 박균택 위원**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 곽규택 위원** 왜 권한이 아닙니까, 특검이?
- 박준태 위원** 노무현 대통령 수사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 목숨값이 달라요?
- 이성윤 위원** 특검을 관여합니까? 특검을 관여해요?
- 박균택 위원** 권한이 아니란 말이야, 권한이.
- 박준태 위원** 수사받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예는 차려야지요!
- 이성윤 위원** 특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 박균택 위원** 그게 예의예요? 국정감사 하는 게 예의예요?
- 김기표 위원** 예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 박준태 위원** 제대로 밝혀 보자고요!
- 나경원 위원** 현장검증해서 CCTV는 봐야지요.
- 김기표 위원** 그걸 왜 국회가 밝힙니까?
- 박균택 위원** 윤석열 때 그래야지, 윤석열 때.
- 박준태 위원** 가서 조문이나 하고 오세요!
- 박균택 위원** 윤석열 정권 때 그런 일이지.
- 위원장 추미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5인, 반대 10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누가 죽었냐고요?
- 김용민 위원** 이태원 참사 때 뭐 했냐고!
- 송석준 위원**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 곽규택 위원** 특검을 왜 국회에서 관여를 못 해요, 특검도 할 수 있는 거지.
- 박균택 위원** 한두 번 일어났어요?
- 김용민 위원** 이태원 참사 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을 때 뭐 했냐고.
- 신동욱 위원** 문재인 정부 때 죽은 사람들이지 윤석열 정부 때 누가 죽었냐고요?
- 박균택 위원** 윤석열 검사 때문에 그런 일입니다, 그때는.
- 곽규택 위원** 특검도 국회에서 다 관여할 수 있어요.
- 김용민 위원**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할 소리냐고, 지금. 오송 참사 진상조사 방해한 사람들.
- 신동욱 위원** 어거지 좀 부리지 마십시오. 다 문재인 정부 때 죽은 사람들이지.
- 조배숙 위원** 그러네, 문재인 정권 때 죽은 사람들이네.
- 박균택 위원**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검사 때입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4시59분)

-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의 구체적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배부해 준 안건이 뭐예요, 위원장님?

○김용민 위원 그쪽에서 신청한 거잖아요.

○곽규택 위원 자료를 줘야지.

○박은정 위원 아까 다 돌렸어요. 회의에 집중 좀 하세요.

○최혁진 위원 잘 찾아보세요.

○김용민 위원 다 배부돼 있어요, 이거 서면동의서. 아니, 국힘당에서……

○곽규택 위원 그건 방금 했고.

○김용민 위원 뒤에 증인이 있잖아요, 뒤에. 집중 좀 하세요.

○박은정 위원 증인 추가요.

○곽규택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왜 안 줘요?

○나경원 위원 아니에요, 우리 증인 안 했어.

○김용민 위원 아니, 뒤 페이지에 증인 있잖아요. 집중 좀 하세요.

○곽규택 위원 집중하고 있는데 안 줬으니까 말을 하는 거지.

○김용민 위원 아니, 그쪽에서 낸 걸 모르면 어떡해요. 서면동의서 뒤 페이지에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가 있잖아요.

○장경태 위원 서면동의서 뒤에 있잖아요.

○곽규택 위원 서면동의서도 안 줬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김용민 위원 서면동의서를 왜 안 줘요, 그쪽에서 낸 건데.

○송석준 위원 하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 내니까……

○이성윤 위원 그쪽이 낸 거예요.

○김용민 위원 아니, 그쪽에서 낸 건데 왜, 여기 도장 다 찍었잖아요. 위원님들, 안 보고 도장 찍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도장 찍은 건 맞는데 그 서류를 안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나경원 위원 어느 순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박은정 위원 말씀하셨어요.

○곽규택 위원 왜 다들 흥분을 해요. 자료 안 줬으니까 안 줬다고 하는 거지.

○위원장 추미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의견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곽규택 위원님 의견 있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오늘 우리 국정감사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당한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개 특검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특검이 지금 진행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감 직전에.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겠지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통과시킨 특검이라면 지금 조사받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면 오늘 국정감사 첫날에 법사위원장께서 ‘다 함께 묵념이라도 간단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하시고 진행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특검은 국회에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 ‘국정감사의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것도 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고 그 예산은 당연히 국가에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특검 아닙니까. 특검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으면 긴급현안질의 할 수도 있는 거고 특검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검에는 국정감사 할 수 없고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번 같은 사건은요 사실 유례가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분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우는 있었지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었고 강압적인 내용이 있었고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명백한 메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당시에 불법적인 사항이 없었는지 CCTV를 보자 그리고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 그 유서를 보자 하는 것이 국회 법사위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도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과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아마 국정감사 첫날이 문제로 온통 다 집중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똑같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는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중인 채택 하셔 가지고 국감장에서라도 질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수사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는 지금 현재 김건희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로 정쟁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토록 김건희를 비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과거 전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재명 후보 시절 변호사비 의혹 사건 제보자 사망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간접 살인을 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사망했을 때도 ‘몸통은 숨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망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책임이 이재명 후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김건희 특검 수사 진행 중에 공무원이 사망하니까 이제는 또 특검의 강압수사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로남불이세요? 왜 같은 죽음에 대해서, 수사 중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은 피의자의 책임이고 피의자가 몸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망한 것이다 책임지라고 하고, 이제 와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요? 윤석열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사의 가혹수사로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말씀드려 볼까요? 변창훈 검사, 윤석열 수사받다가 죽었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지요. 대검 수사관도 윤석열 수사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김인식 KAI 부사장, 사망했습니다. 정치호 변호사, 윤석열 수사받다가 사망했어요. 이재수 사령관, 사망했습니다. 윤석열의 가혹 수사로 줄줄이 사망한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입 하나 병긋하셨어요?

○송석준 위원 문재인 정권 때 아니에요?

○박은정 위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수사했어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책임이네요.

○전현희 위원 조용히 하세요.

○박은정 위원 대통령과 국회에서 독립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특검에 대해서…… 저희 피감기관이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지금 3대 특검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그 실체를 들여다보겠지요. 그 결과를 기다리세요. 권한도 없으면서 왜 갑자기 나서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마치 안타깝다는 듯이 나서 가지고, 이 법사위 국감 현장에 와 가지고 이것을 정쟁화시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송석준 위원 안타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박은정 위원 안타깝습니다!

○송석준 위원 갑자기 또 안타깝지 않다는 듯이 그러는데……

토론 신청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만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임의로 자르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토론 그만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추모한다는 말입니까?

○송석준 위원 아니,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주셔야지 이렇게 엉망으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서영교 위원 안타까워서 그렇게 실실 웃어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 추미애 교섭단체인 민주당에서 토론 한번 해 주시지요. 그리고 토론 마치도록 하시지요.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송석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토론을……
- 박지원 위원 송언석 위원, 내가 발언권 얻었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 송석준 위원 허위 발언이십니다, 허위 발언. 저는 ‘송언석’이 아니고 ‘송석준’이에요.
- 박지원 위원 발언권 얻었어요. 조용히 해요, 송석준 위원. 송언석이나 송석준이나 비슷해요.
- 송석준 위원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 위원장 추미애 그만 좀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선배 위원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송석준 위원 선배님이라도 발언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 위원장 추미애 송 씨는 맞혔네요.

(웃음소리)

그만하세요. 웃고 지나갑시다.

- 송석준 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 위원장 추미애 적당히 하세요! 선배님이시잖아요.
- 박지원 위원 송석준 위원이 차기에 송언석 대표의 뒤를 이어서 원내대표 하라고 내가 불러 준 거야. 체급을 올려 줬어요.
- 서영교 위원 할 사람이 따로 있지.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토론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한이 없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추미애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 서영교 위원 그만 좀 해요! 송석준 위원, 그만 좀 해요!
- 김용민 위원 그냥 퇴장하세요.
- 곽규택 위원 간사가 왜 퇴장하라는 말을 해요.
- 서영교 위원 나이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진짜. 그만해요!
-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토론해 주십시오.
- 박지원 위원 우리가 오늘 법사위를 하면서, 법사위 국정감사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상대방 위원이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 끼어들기, 저부터 잘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보면 비교적 우리 여당 위원들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제발.
- 그리고 특검에서 그러한 사고가 난 것은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의 열차가 이미 출발돼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바람은 내란 종식, 3대 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 조배숙 위원 ‘내란’ ‘내란’ 하지 마세요.
- 박지원 위원 그러나 내란 세력이니까 듣기 싫겠지요. 그 내란을 동조해 가지고 되겠어요?
- 나경원 위원 우리가 왜 내란 세력입니까?
- 박지원 위원 되겠어요?
- 신동욱 위원 저희는 범죄와의 전쟁 중이에요, 범죄와의 전쟁.

○박지원 위원 되겠어요?

○신동욱 위원 저희는 범죄와의 전쟁 중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윤석열·김건희와 손절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3대 개혁 열차에 동승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역사와 국민이 심판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동참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토론 기회 좀 주세요.

○김용민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으로부터 토론 종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는 발언권 안 주니까 이렇게 그냥 얘기 좀 할게요.

어디서 지금 이재수 장군 이름을 들먹이고 어디서 변창훈 검사 이름을 들먹여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저희가 기가 막히다고 한 것입니다. 어디서 이재수 장군 이름을 들먹여요?

○박은정 위원 그러면 귀 막으세요. 귀 막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추미애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중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5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43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이형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10. 13.(월) 대법원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10. 13.(월) 대법원 10. 20.(월) 서울고등법원 등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이진숙 위원장 체포절차 부당성 관련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0. 14.(화) 법무부	검찰해체 관련	
조경식	(자칭) 전 KH그룹 부회장	10. 15.(수) 대법원	검찰해체의 위헌성, 국민피해, 부작용 대북송금 사건 조작 주장 관련 이철규 국회의원 관련 허위 증언	추가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10. 20.(월) 서울고등법원 등 10. 21.(화) 제주지방법원	비위 관련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10. 20.(월) 서울고등법원 등 10. 21.(화) 대전고등법원 등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법관 비위 및 수사 관련	
박정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0. 20.(월) 서울고등법원 등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이진숙 위원장 체포절차 부당성 관련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0. 21.(화) 창원지방검찰청	명태균 게이트 부실 수사 관련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10. 21.(화) 대전고등검찰청 등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10. 30.(목) 종합감사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10. 21.(화) 대전고등검찰청 등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10. 30.(목) 종합감사		법무부 12·3계엄 동조 관련
임세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10. 21.(화) 대전고등검찰청 등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10. 30.(목) 종합감사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	10. 21.(화) 대전고등법원 등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10. 21.(화) 대전고등법원 등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법관 비위 및 수사 관련
구재훈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한강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박노산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10. 21.(화) 대전고등검찰청 등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김도형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항소2부·합의12부)			금품수수 관련 공수처 수사 관련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0. 21.(화)		
장란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비위 관련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박철완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0. 21.(화) 부산고등검찰청	임성근 전 사단장 법률 조언 관련	
김종철	변호사	10. 21.(화)		
박용찬	신안군의원	대전고등검찰청 등	인권 및 고용노동 관련	
김경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찰 조사 과정 관련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수원구치소 감찰 관련	
박치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관봉권 떠지 유실 관련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이진숙 위원장 체포절차 부당성 관련	
김숙동	감사원 심사관리관	10. 24.(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재혁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10. 24.(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치 및 부실 감사 관련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비고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10. 13. 10:00 10. 14. 10:00 10. 23. 10:00 10. 27. 10:00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0. 13. 10:00	
최재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10. 13. 10:00	
김종철	변호사	10. 13. 10:00 10. 14. 10:00 10. 27. 10:00	철회
박용찬	신안군의원	10. 13. 10:00 10. 14. 10:00 10. 27. 10:00	
전진결	교도관	10. 14. 10:00 10. 23. 10:00	
박상오	(주)호텔신라 호텔운영총괄 부사장	10. 14. 10:00	
남욱	변호사	10. 14. 10:00 10. 27. 10:00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비고
이한우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10. 16. 10:00	
이진형	前 현대건설 상근자문(예. 육군소장)	10. 16. 10:00	
편무삼	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	10. 17. 15:00	
배상윤	KH그룹 회장	10. 21. 14:00	
오이택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교정관	10. 23. 10:00	
신가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10. 23. 10:00	

참고인(21인)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10. 14.(화) 법무부	여당 주도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재개정 방향	추가
정수경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아동유괴 납치 등 국민 안전치안 관련	
맹경열	부동산규제 피해자		주택 규제 피해 관련	
장용근	교수	10. 15.(수) 대법원	재판 중지 관련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10. 17.(금) 군사법원	불법계엄과 쿠데타 방지를 위한 군제도 개선, 채상병 진상규명 및 군대 내 수사외압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안진결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10. 20.(월) 춘천지방법원	검찰개혁 관련	
강혜경		10. 21.(화) 창원지방검찰청	명태군 게이트 관련 강혜경 공익제보자 담당 변호사	
김태열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정구승	변호사	10. 23.(목) 서울고등검찰청 등	쿠평 사건 관련	
문건일	변호사			
정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10. 27.(월) 대검찰청	특활비 관련	
백해룡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대장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비고
고 이재석 경사 동료	해경	10. 30.(목) 종합감사	고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성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 일시	비고	
양홍석	변호사	10. 13. 10:00 10. 14. 10:00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0. 13. 10:00 10. 14. 10:00		
고 이재석 경사 동료	해경	10. 13. 10:00 10. 14. 10:00		철회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10. 13. 10:00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10. 30. 10:00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화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